

# News & News



## 대국민 홍보 등 4개 소위 본격가동 최남섭 위원장 체제 불법 특위 2기 기본방침 확정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불법 특위)가 2기를 가동하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이 치과계의 시대적 사명임을 다시 한번 재천명했다. 또 불법 특위는 4개의 소위원회로 분리해 업무를 처리하고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할 2기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불법 특위가 7월 12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남섭 위원장 임명 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위원회 업무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불법 특위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본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제를 재편했다.

4개 소위원회로는 개정된 의료법의 엄격한 법 적용 필요성을 피력하는 대국민 홍보 소위원회를 포함해 ▲정부 및 복지부 담당 소위원회 ▲법제 및 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위법 사례 및 정보 취합 소위원회 등으로 나뉠

전망이다.

최남섭 위원장은 "김세영 협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많은 성과를 냈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많은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드러났지만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내부가 변해야 외부의 변화도 이뤄낼 수 있다. 앞으로는 법대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들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특위가 추진해 왔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불법 네트워크 뿐 아니라 이를 모방한 아류 치과들도 속속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단속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반영됐다.

한편 불법 특위는 4개 소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본 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게 예정이다.



## "FDI 부당성 주변국에 알린다" 국제위원회 회의

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박선욱·이하 국제위)가 2013 FDI 서울 총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FDI 본부에 강력한 항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국제위는 7월 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선욱 위원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FDI와의 2013 FDI 서울총회 재협상 및 협상파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선욱 국제위장은 "FDI가 공정하지 못한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합의 없이 총회 개최지 변경을 결정했다"며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쉽지만 FDI가 명백히 우리를 무시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위는 2012 FDI 홍콩총회에서 석연치 못한 이번 협상 결과를 주변국에 알리는데 동의하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특히 홍콩 총회 기간 중 FDI 본부에 치협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모이는 4개국 회의와 더불어 미국·영국·캐나다까지 포함된 7개국 회의를 통해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 밖에 국제위는 향후 추이를 살피며 APDF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국제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대국민 마라톤 축제로” ‘스마일 런 페스티벌’ 홍보활동 박차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대국민 마라톤 축제로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 관련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7월 18일 치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3번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부분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홈페이지 리뉴얼 진행상황 검토 ▲기념품 최종 선정 ▲행사 타임테이블 검토 ▲홍보방안 모색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회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치대, 치과병원, 보건소 등에 부착을 요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광고란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 대국민 홍보활동

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치과 의사 연합밴드가 최적의 환경에서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음향 시스템, 리허설 및 공연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심현구 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해 준비하자”며 “치과인들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2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의 치료를 후원하는 목적으로 오는 9월 16일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개최된다.



### 개원가의 의지·열망 ‘총단결’ 치협 1인 시위 ‘마무리’ 10월 ‘치과인 행동의 날’ 결집

치협이 각 지부 및 개원가의 참여로 이어온 1인 시위를 7월 말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이번 1인 시위에서 나타난 치과계 내부의 항의를 오는 10월 중순 열릴 ‘치과인 행동의 날’ 행사를 정점으로 최대한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치협이 지난 5월 9일 김철신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진행한 이번 1인 시위를 7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당시 치협은 과징금 5억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한편 해당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정위 정문 앞 1인 시위에는 치협 임원들과 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한여자치과 의사회 임원들과 일반 개원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해당 지부와 울산지부, 충남지부, 충북지부 등 인근 지부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며 공정위 결정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특히 치협은 오는 10월 중순 열릴 대규모 옥외 집회인 ‘치과인 행동의 날’ 행사에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나타난 전국 개원가의 의지와 열망을 하나로 묶어 치과계의 단결된 역량을 대내외에 알릴 예정이다.